

2012.7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대전 MBC

2012년 7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대전문화방송

1. 회의개최

일시	장소	참석인원 수		비고
		위원	방송국	
2012.7.31	대전MBC 대회의실	6/10	5	

○ 시청자위원 불참자(4명) 명단: 박희원, 오덕성, 김명수, 장동환 위원

○ 방송사 주요참석자 명단 : 강덕원 경영기획국장, 김미리 편성제작국장, 신영환 편집제작부장, 정갑관 기술국장, 정종건 기획심의부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7	9	-	-	16	-	16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분	수용	의견참고	반론	계
건수	5	11	-	16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 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계	2건	2건	
기타	대전MBC 스포츠중계 편성 확대	라디오 프로야구 중계 확대를 시작으로 스포츠중계 편성확대하고 있음.	6월
보도	뉴스데스크 단신뉴스 개선	뉴스데스크 단신뉴스 처리 비중 증가, 내용도 생활밀착형으로 점진적 개선	6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성 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관련 공개 청구

요청자(단체)	공개내용	공개방법
	해당사항 없음	

나. 시청자위원 변동사항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분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보도	세종시에 장밋빛 청사진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세종시에 편입된 인근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교통문제 등 야기되는 현안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할 필요가 있다(김영광).	주민불편사항을 찾아 보도하겠다.	수용
보도	엑스포 남문 광장 주변시설이 만들어진지가 19년이 넘었다. 노후화되어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다. 엑스포 남문시설을 집중 조명하여 시로 하여금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도록 방송해야 한다고 본다(김영광).	현장 확인 후 안전사고 가능성이 있다면 보도하겠다.	의견참고
교양	<아침이 좋다>에 젊은 남녀 청춘들의 짝을 맺어주는 '사랑플러스' 코너가 있었다. 4쌍, 8명이 최종적으로 선발이 되었는데 이를 8커플로 소개 하고 있었다. 어휘 선정을 잘했으면 한다(한찬희).	4쌍 8명을 8커플로 소개한 것은 진행자의 실수로 주의하겠다.	수용
교양	<아침이 좋다>에 청양 블루베리 농장에서 블루베리의 효능을 현장 지역주민들이 직접 소개를 하고 있었다. 이는 식품영양학과 교수나 전문가의 별도 인터뷰를 삽입하여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신뢰성을 더욱 느낄 수 있으리라고 본다(한찬희).	전문가의 조언을 삽입해서 프로그램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과 단순 정보 오락으로 진행하는 데는 1장 1단이 있다고 보는데 사안별로 전문가의 조언도 프로그램에 도입시키도록 하겠다.	의견참고
교양	<아침이 좋다>에서 타 MBC계열사 제작인 '여름철 보양식'이 방송되었다. 화질, 음성(오디오), 배경음악 등 quality가 떨어졌다. 사전에 미리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한찬희).	타사 테오프로 자사제작물에 비해 완성도가 떨어진 부분이 있었다. 타사 테오프도 소재 선정에 더욱 유의하겠다.	수용
교양	<세종시 관련 다큐 특집 프로그램> 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의 화두에 맞게 접근한 프로그램이었다. 충남은 땅과 인구를 내준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내용에서는 충남인사 인터뷰가 거의 없이 대전지역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충남쪽 관계자 발언을 도지사 이외는 없어 아쉬움을 갖게했다(김경숙).	세종시 특집제작에는 충남 뿐만 아니라 전국적 지명도 있는 인사의 인터뷰가 필요했으나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 충남지역 인사의 발굴 및 특집시 참여하도록 유도 하겠다	의견참고
보도	공공행정학회와 대전MBC와 MOU를 체결하여 학회 관련 교수가 대체적으로 시사와 선	시사프로그램 MC는 공공행정학회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다.	

구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고
	<p>거 프로그램 MC도 보고 패널로도 참여를 한다. 부정적 입장에서 보면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다양성과 신뢰성이라는 측면에서 다시 고려를 해봄직하다. 대선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참신한 진행자와 패널을 찾아 볼 수도 있지 않을까?(김경숙).</p>	<p>대전MBC가 나름 갖고 있는 인력풀을 동원해 MC로 한 것이다. 앞으로 시사 토론프로그램은 “생방송 토론마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진행자도 라미경교수로 바꾸어 15일부터 방송할 예정이다. 한 가지 제한된 예산에 지역에서 찾을 수 있는 인력풀에 한계가 있다.</p>	<p>의견참고</p>
<p>교양</p>	<p>예전에 타 방송사에서 ‘우리 아이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아이와 부모들 간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사회에 순기능하는 프로그램 탄생을 기대한다(유덕순).</p>	<p>단독 편성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존프로그램의 코너로라도 부모와 자녀간의 소통프로그램을 반영하겠다.</p>	<p>의견참고</p>
<p>교양</p>	<p><아침이 좋다> 교양 프로그램에 ‘사랑플러스’ 코너가 있었다. 이 프로그램은 구성의 육하원칙이 없다. 시청자들에게 미혼의 젊은 남녀를 어떻게 모집했는지, 어떤 사람(직업, 나이 등)들인지 출연자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다. 참여한 젊은 당사자 또한 참여해서 ‘재미있었다, 좋았다’라고 천편일률적으로 좋다고만 표현 하지만 시청자 입장에서 무엇이 좋았는지 느끼지 못했다. 아이를 낳기 위한 목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표현이 있었는데 이러한 표현도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유덕순).</p>	<p>사랑플러스는 ‘아침이 좋다’의 독자적 구성이 아니고 행사를 녹화 편집 구성한 것으로 제작진의 의도를 충분히 반영시킬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내년 행사 때는 방송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단계부터 적극 참여 반영 하도록 하겠다.</p>	<p>의견참고</p>
<p>보도</p>	<p>시청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 구성원들의 헌신과 책임의식이 필요하다. 공영방송 책무를 잊지 말기를 부탁한다. 세종시가 출범하였다. 50만 규모로 발전할 세종시에 방송센터 건립을 건의한다. 우수구역으로서 상주기자를 고정 배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김형주)</p>	<p>보도국에서는 2명의 기사를 배치했다. 세종시는 그 규모가 아니라 충청권에 새로운 변화원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좀 더 능동적으로 보도 기사 배정과 뉴스원을 개발하겠다. 방송센터 건립문제는 회사차원에서 결정할 문제다.</p>	<p>의견참고</p>
<p>교양</p>	<p>콘텐츠에 있어서 타 방송사와의 차별화 노력이 필요하다. 문화예술 콘텐츠 생산자로서 역할과 그 기능을 십분 발휘해주길 바란다. 견우직녀 축제는 그 성격과 기능을 확장하여 프로그램으로서 위상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김형주).</p>	<p>견우직녀 축제는 기획의도도 좋고 우리지역 고유축제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바 적극 참여하겠다</p>	<p>수용</p>
<p>보도</p>	<p><특집 토론 명품도시 세종 어떻게 만드나?> 토론자의 패널로서 세종시장, 학계전문가 2명, 공무원 4명으로 이루어졌다. 정책시정 흥</p>		

구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고
	<p>보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 시민단체나 환경단체 등 견해가 다른 인사들도 패널에 같이 참여해야 열띤 토론이 가능한데 아쉬움이 크다.</p> <p>내용에 있어서도 환상형 도시구조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미리 준비된 자료화면을 같이 보여주었으면 지루함이 다소 덜어졌을 것이다. 패널들에 대한 앵글각도도 단순하다. 상대방 리액션 컷트가 적고 말하는 패널을 긴 호흡으로 처리를 하고 있어 영상구성이 단조롭다. 앵글의 변화가 필요하다(송인덕).</p>	<p>개선해 나가겠다.</p>	<p>의견참고</p>
<p>보도</p>	<p>뉴스데스크의 뉴스 중에 대형마트 주말 영업에 대한 기사가 있었다. 기자의 멘트 중에 가처분 소송, 본안 소송 등 법률적 용어가 많이 등장하여 바로 이해하기 어려웠다. 법률 용어는 좀더 알기 쉬운 용어로 풀어서 제작하자(송인덕).</p>	<p>개선해 나가겠다.</p>	<p>의견참고</p>
<p>보도</p>	<p>마을 상수도 독극물 후속 보도가 있어서 반갑게 접했다. 마을 상수도 관리가 그 이후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궁금했었다. 작은 뉴스라 하더라도 시청자들의 관심에 있는 것은 후속보도가 계속해서 필요하다(송인덕).</p>	<p>감사하다. 더욱 노력하겠다.</p>	<p>수용</p>
<p>교양</p>	<p><아침이 좋다> 프로그램에서 '시청자참여'코너가 있다. 참여방법에 문자참여로서 유료문자 50원을 실시간으로 소개하는데 이 돈을 받아야하는가?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지 않는다.</p> <p>앱이나 스마트폰 인터넷 참여 등의 방법으로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송인덕)</p>	<p>시청자 참여문자는 수익성이 아니라 수익금 전액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활용 하는 바 이 내 용을 적극적으로 고지하고 무료 활용 방안도 검토하겠다.</p>	<p>의견참고</p>
<p>교양</p>	<p><시사플러스>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다루었다. 시장상인 대표, 지자체 관련 공무원 등 인터뷰가 있었는데 중앙정부와 국회의 의견도 취재가 있었으면 프로그램 충실도가 더 있지 않았을까 한다. 방송을 다 보고난 후 그래서 전통시장 활성화는 어떻게 할 수 있나? 의문점을 가졌다. 있으나마나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맥을 빠지게한다. 해결 방안을제시를 위해 더욱 프로그램을 정교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전통시장별로 각</p>	<p>폭염이 계속 되면서 전통시장이 더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전해진다. 전통시장 활성화방안은 다양한 대책이 나오고는 있으나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본다. 앞으로 전통시장문제에 관해서는 다양한 각도의 취재를 통해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다.</p>	<p>의견참고</p>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p>각의 특색과 장점을 살려 이 부분을 부각시켜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제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송인덕).</p>		